

롯데슈퍼 수완점 사실상 포기

롯데마트·아울렛은 사업조정 대상 제외 슈퍼업체 “대기업에 면죄부 줬다” 반발

중기청 SSM 새 지침 논란

골목 슈퍼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저지에 막혀 ‘사업개시 일시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롯데슈퍼 수완점이 입점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새로 마련한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광주 수완지구의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은 예정대로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와 중소기업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롯데슈퍼측이 최근 구두로 수완점 입점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

광주시 관계자는 “롯데슈퍼 고위 관계자가 입점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을 전해왔다”며 “현재 건물주와 임대 계약 철회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가 롯데슈퍼 측에 입점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롯데슈퍼 수완점은 당초 이달 중순 개점 예정이었지만 광주시가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SSM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내리자 개점을 연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중기청이 이날 발표한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에 따르면, 롯데슈퍼와 함께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된 수완지구 롯데마트는

예정대로 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새로운 시행 지침에서 SSM 사업조정권을 대폭 강화했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고 중소기업이 입점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아울렛도 SSM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완지구에 출점 예정인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언제든 입점이 가능하다.

실제로 롯데측은 다음달 24일을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개점일로 잡고 오픈을 진행중이다.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은 광주 월드컵점처럼 마트와 아울렛이 한 건물에 동시에 출점하는 형태로 규모도 롯데 월드컵점과 비슷한 규모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기청 시행 지침에 따르면 수완지구 롯데마트는 상권이 형성되기 전 지역이라 입점이

문제가 없고 아울렛도 대다수 매장이 지역이 아닌 임대매장이라 사업조정을 받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입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SSM 입점 반대운동을 해 온 단체들은 중기청의 새 시행규칙 일부가 대기업 유통업체에 입점 면죄부를 준 것이냐 따졌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중기청 시행규칙에 애매한 항목이 많이 대기업들이 이를 입점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출점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네트워크 산하 광주의류 판매연합회는 당초 26일 수완지구 롯데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어 다음달 2일께 신청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문닫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는 25일 새벽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니름기자 mjna@kwangju.co.kr

피해 눈덩이·경쟁사보다 36% 고임금 “더 이상 방치뎌 파산한다”...최후 선택

■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왜?

금호타이어가 최후의 수단일 수 있는 직장폐쇄를 선택한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태업·파업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회사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경쟁사보다 36%나 많은 임금 구조로는 아무리 기술개발과 영업을 잘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장폐쇄 등은 이미 예견돼 왔다. 사측은 협상 초반, ▲임금 동결 및 정기승급 보류 ▲성과급 지급 불발 ▲고용비 등 복리후생 항목 중단 ▲유휴인력 전환배치 등 정원 재설정 ▲품질혁신운동 등 6개 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지난 24일에는 733명의 명단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런 강공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방치하면 망한다는 경영진의 관

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대표이사는 지난달 본보와 인터뷰에서 GM을 언급, “타산지 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정리해고는 마지막 방안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회사가 살려고 정리해고 가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2004년부터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올 2분기까지 1천42억원의 영업 적자와 2천2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태업·파업으로 매출 손실만 1천여 원을 넘어서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2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만 2천95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 같은 파업으로 지난해 임금이 지난 2004년보다 71.6%나 인상됐을 정도로 매년 임금을 올렸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지만, 평균 임금은 1위 업체보다 35.9%나 높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근로자 평균 임금은 6천600만원으로 경쟁사(평균 4천200만원)보다 2천300만원이 많다. 1억원 이상인 현장 직원이 209명, 9천만원 이상이 610명, 8천만원 이상은 1천309명에 이른다.

물론 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들이 이날 광주에 모여 사측을 비난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삼급 단체전 전국 금속노조와 연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았다. 공장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벼랑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수출 ‘뚝’

12개사 올 상반기 8천억 ... 지난해보다 12% ↓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2개사의 올 상반기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출액은 총 8천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천210억원에 비해 12.33%(1천136억원) 감소했다.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도 2008년 상반기 45.21%에서 올 상반기 44.64%로 0.57%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액 상위 3개사는 금호타이어(6천286억원), KPX화인케미칼(1천113억원), 대유신소재(267억원) 등이었고 내수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3천368억원), 조선내화(1천660억원), 부국철강(1천30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수출 증가액 상위사는 로케트전기(148억원)로 작년 대비 52억원이, 내수증가액 상위사는 동아에스텍(336억원)으로 작년 대비 18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에스제이금속, 노사문화 우수 기업

(주)에스제이금속은 노사문화 우수 기업에 선정돼 정순호 광주지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사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근로자 복지와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노동부가 선정한다.

에스제이금속은 장성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로 고용안



정과 무분규로 바람직한 노사문화 화를 가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바마 미 대통령 “버냉키 FRB 의장 재지명”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초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사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을 재지명할 것이라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24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중 휴가중인 마시즈 빈야에서 버냉키 의장의 연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버냉키 의장은 내년 1월 31일 현 4년 임기가 만료된다.버냉키 의장은



또 공화당원이다. 버냉키 의장의 FRB 의장 연임은 이미 예상돼왔으며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리는 버냉키 의장이 현 경제침체와 금융위기에 “대담하고 탁월하게” 대처해왔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100만명 넘어섰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8월 24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2천809명(지급액 2조7천736억원)으로 집계된 1996년 실업급여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을 넘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2조8천653

억원이고 지급자수는 99만61명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 기간에 전년보다 72% 급증한 4만6천732명의 실직자에 1천231억원이 지급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01.38 (-10.84)
코스닥지수	510.69 (-0.67)
금리 (국고채 3년)	4.34% (-0.06)
원·달러 환율	1,248.20원 (+8.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신입농민지원, 농기계임대, 농기계수리, 부품임대, 농기계정비

☎ 062-363-4800

● 농기계임대 ● 농기계수리 ● 부품임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임대 ● 농기계수리 ● 부품임대 ● 농기계정비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KA100L 399,000원 219,000원 (18% 할인)

비데프라자

☎ 062-515-1144